

후반기 국회 상임위장 누구? 여야, 당내 협의 착수

민주당, 나이·여성 안배에 반대 목소리도... "경선해야"

한국당, 16일까지 배분 마무리 환노위는 희망자 없어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각 당별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11일부터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등 당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바 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이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씩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다. 같은 선수일 경우 나이와 경력을 안배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

민주당 몫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은 13일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홍영표 의원에 돌 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2석을 여성 몫으로 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원회+4'가 유력하며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인 이재근·전혜숙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은 선수와 나이를 안배해 안민석·최재성(4선)·노웅래·민병두·안규백·정성호·이춘석(3선) 의원 등 순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 호양 1인시위 불허...법원 "국가가 배상"을

경찰의 금지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지 못한 시민단체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부동식 판사는 참여연대 고모씨 등 간사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총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50만~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씨 등은 박근혜 탄핵 국면 초반인 2016년 11월 소송을 냈다. /뉴스1

누구까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는 안민석·최재성 의원의 최고위원·당대표 출마 여부에 달려있다. 선출직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민주당 관례인 데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령에 따른 안배와 상임위 여성 할당 방침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임위원장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민석·정성호 의원은 기재위원장 ▲노웅래·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본인 희망과 별도로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 의원은 과방위원장, 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장 등으로 회자된다.

한국당 몫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한국당은 16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은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이명수·박순자 의원이, 예결위원장은 홍문표·이종구 의원이, 외통위원장은 황영철·김세연·윤상현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이명자·박순자 의원이, 산자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이 후보(복수)로 거론된다. 비인기 상임위원 환노위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후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조

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경선을 시켜야 하지만 사실상 경선이 없이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지도록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단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문화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의장직에 추대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사무총장에 유인태 전 의원, 비서실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실상 내정하는 등 업무를 준비해왔다.

한국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정진석·이주영 의원이 부의장 후보직을 놓고 경선을 치른다. 바른미래당도 13일 부의장 후보를 뽑는다. 정병국(5선) 의원과 주승용(4선) 의원이 부의장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후보로 추대되지 않는 한 경선이 원칙이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여야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여기 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대체 국회에 언제 제출됐느냐를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됐다"며 "오늘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긴말 드리지 않겠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우리당은 중소기업업자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것을 당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발대식을 계기로 올해 안에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작년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 포인트로 전통시장만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1

평화당 차기 당권주자 윤곽

유성엽·정동영·최경환 3파전

민주평화당을 이끌어 나갈 차기 당권주자 경쟁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를 언급해온 정동영 의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사표를 던진 유성엽 의원, 11일 박지원·천정배 의원의 공개지지를 받으며 출마를 공식화한 최경환 의원의 3파전 구도가 그려진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정책부문을 강화해 국민지지를 얻어 저조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평화당이 존재 위기를 맞고 있지만 당을 사임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끌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다. D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는 변화와 새 인물을 원한다. 평화당과 호남의 뉴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0대 기수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꾼 김대중 정신, 초재선 시절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천정배·정동영 선배의 기개, 호남의 자존심을 세워 온 박지원 의원의 정치력에 이어 저 최경환이 강한 당 대표가 돼 국민·당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에 새 인물들이 본격 등장하고 있다. 평화당과 호남은 뉴 리더로 승부해야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정동영 의원 최경환 의원

유, 사심없는 리더십 통해 대안정당 역할 강조 정, 중진 저력으로 창당 초기 평화당 안정화 최, 새인물 이미지 선점... 박지원·천정배까지

출러는 결과를 볼 때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평화당은 대안세력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반드시 뜻을 이뤄야 한다"며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처절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기 위해 몇몇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경우 6·13 지방선거 이후 평화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닌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출마를 시사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새로운 인물"이 당 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그는 또 평화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민생·민주·평화·개혁·평등이라는 당 정체성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원내와 원외 구분 없는 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최 의원의 출마가 기자회견 같은 당 천정배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함께 하며 공개지지를 한 덕분에 최 의원은 당을 이끌 '새 인물'의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일정부분 얻었다는 평가다. 실제 천 의원은 자신이 그간 강조해온 뉴 DI(김대중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이 최 의원이라며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했다.

박 의원 역시 최 의원이 '촛불혁명 후 정치권의 많은 변화에 앞장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의원'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초 이용주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스1

무주 2018 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 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메인무대
	19:00		개막식	
	20:00		축하공연 [홍진영]	
20:40		불꽃놀이		
7월 29일 일요일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메인무대
	20:00		영화상영	